

# 금융소비자의 소리



금융소비자의 소리

# CONTENTS



2018-01호

금융소비자의 소리

## Contents

---

- I.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II. 소비자보호 이렇게 개선됩니다
- III. 유용한 금융정보 - 금융꿀팁
- IV. 소비자 경보! 주의하세요.

##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①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습니다. (2월)

- '18.2.8.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습니다.
- '18.2.8.부터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②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2월)

-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③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여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분쟁조정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구제할 예정입니다.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④ **(보험금 통합 조회)**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cont.insure.or.kr)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내보험 찾아줌(ZOOM))를 '17.12.18. 시작하였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⑥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 →25%) 되고,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4월)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로 축소하고,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⑦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월)

-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보험도 일정기준 충족 시 반드시 공동인수하여,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⑧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14개중)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 외국인이 14개 언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번역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내용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회신합니다.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⑨ (ISA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월)

-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의 2배 규모인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였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⑩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

- 보장공백 해소를 위하여,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출시하였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⑪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인터넷을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으로 조회대상을 확대합니다.(www.payinfo.or.kr)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3.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

⑫ **(新DTI 시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었습니다. (1월)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부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 반영

- (소득)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인정소득(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⑬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 상환비율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입니다.

\*  $RTI = \frac{\text{연간임대소득}}{\text{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text{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합니다.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14 (대출모집인 규제)**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1월)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신용대출 관련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서 등) 안내 등 설명의무를 확대합니다.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15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월)

- '18.7.21.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15.7.21.~'18.7.20	'18.7.21~
기존 단말기	사용 가능	<b>사용 불가</b>
IC등록단말기	사용 가능	사용 가능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17.12.28.) 참고  
(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 II 소비자보호 이렇게 개선됩니다

※ '18.1.1.부터 '18.3.31.까지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보이는 1332'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18.2.12.부터 금감원 콜센터(1332)의 음성 ARS안내를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1332」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 「보이는 1332」는 1332 통화시 음성으로 안내하던 내용을 스마트폰 화면에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음성안내 중간이라도 원하는 상담메뉴를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 특히,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상담을 ARS 가장 첫 메뉴('0'번)로 배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즉시 연결토록 함으로써,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보이는 1332 주요화면



## 2 「보이는 ARS」 이용방법

① 스마트폰에 「보이는 1332」 모바일 앱(App)을 설치합니다.

**\* < 「보이는 1332」 설치방법 >**

- Play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보이는 1332'를 검색하여 '설치' 하고 최초 1회 앱에 접속하여 '통화·알림' 팝업을 허용하면 완료

① 앱스토어 등 실행		② 검색창에 "보이는 1332" 검색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④ 통화·알림 팝업창 허용(최초 1회)		③ 앱 접속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보이는 1332 아이콘 터치

②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보이는 1332」 화면이 자동 팝업되어,

- 금융소비자는 음성안내를 끝까지 들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화면상의 원하는 메뉴를 터치하여 신속하게 금융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보이는 1332' 서비스를 시작합니다」(18.2.12.) 참고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 1 개요

-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되어,
  -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자차(쌍방과실 제외)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을 신설하였습니다.(‘18.2월 시행)

### 2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

- **(적용대상)** 자기차량손해 사고 中 ①단독사고, ②가해자 불명사고, ③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적용되고,
  -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방법)**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합니다.
  -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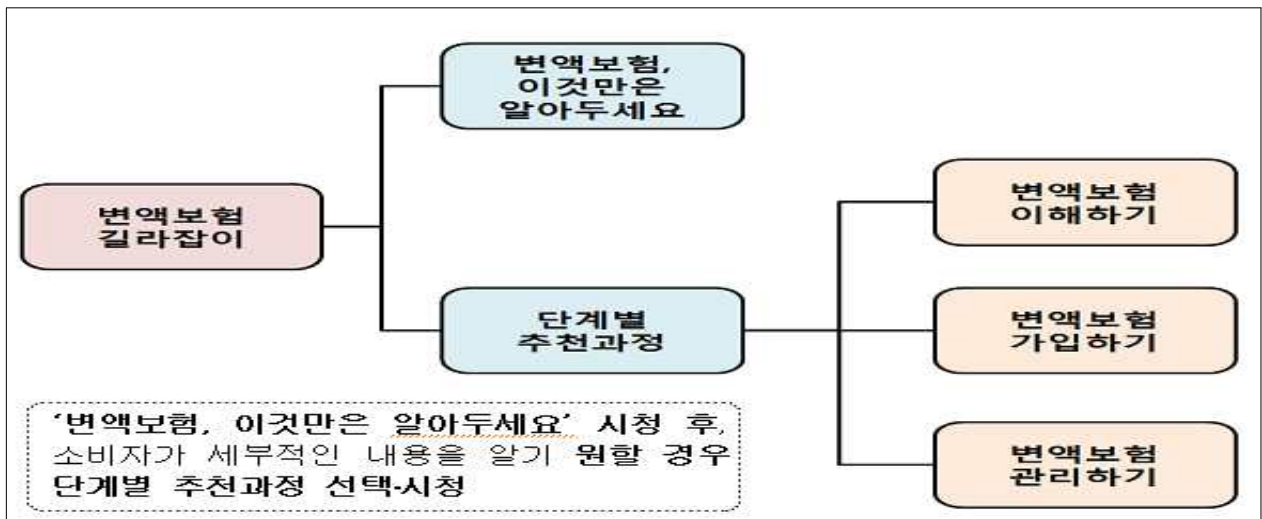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18.1.23.) 참고 (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 3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1 개요

-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나,
  - 위험보장과 투자기능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구조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변액보험 길라잡이 구성 >



#### 2 「변액보험 길라잡이」 구성 및 특징

- 1 (변액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전체 동영상을 시청하기 곤란한 소비자를 위해 변액보험의 중요사항만을 선별한 핵심설명 영상으로,
  - ‘단계별 과정’에 분산된 유의사항을 간편하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 핵심설명 영상 주요 안내항목 >

기본 사항	핵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특징</li><li>· 일반보험과의 차이점</li><li>·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및 각각의 특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발생가능</li><li>· 자신에게 적합한 변액보험 상품 선택</li><li>· 가입 전 주요 정보를 미리 비교</li><li>· 가입 후 장기간 유지가 바람직</li><li>· 가입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li></ul>

② (단계별 과정) 변액보험 이해하기 · 가입하기 · 관리하기 등 3개 과정으로 변액보험 관련 주요내용을 Q&A방식으로 설명하며,

-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및 운용방식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다양한 그림이나 도표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합니다.
- 소비자는 과정 시작 前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동 진단결과에 적합한 과정(3가지)이 추천됩니다.

< 각 과정별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변액보험 이해하기	기초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 기본적인 사항과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 가입하기	가입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합성진단’ 제도 등 가입시 유의사항 및 변액보험 펀드에 대한 안내
변액보험 관리하기	既 가입자를 대상으로 펀드변경 방법, 추가납입제도 등 스스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안내

3 「변액보험 길라잡이」 시청방법

- 소비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FINE, 보험다모아에 게시하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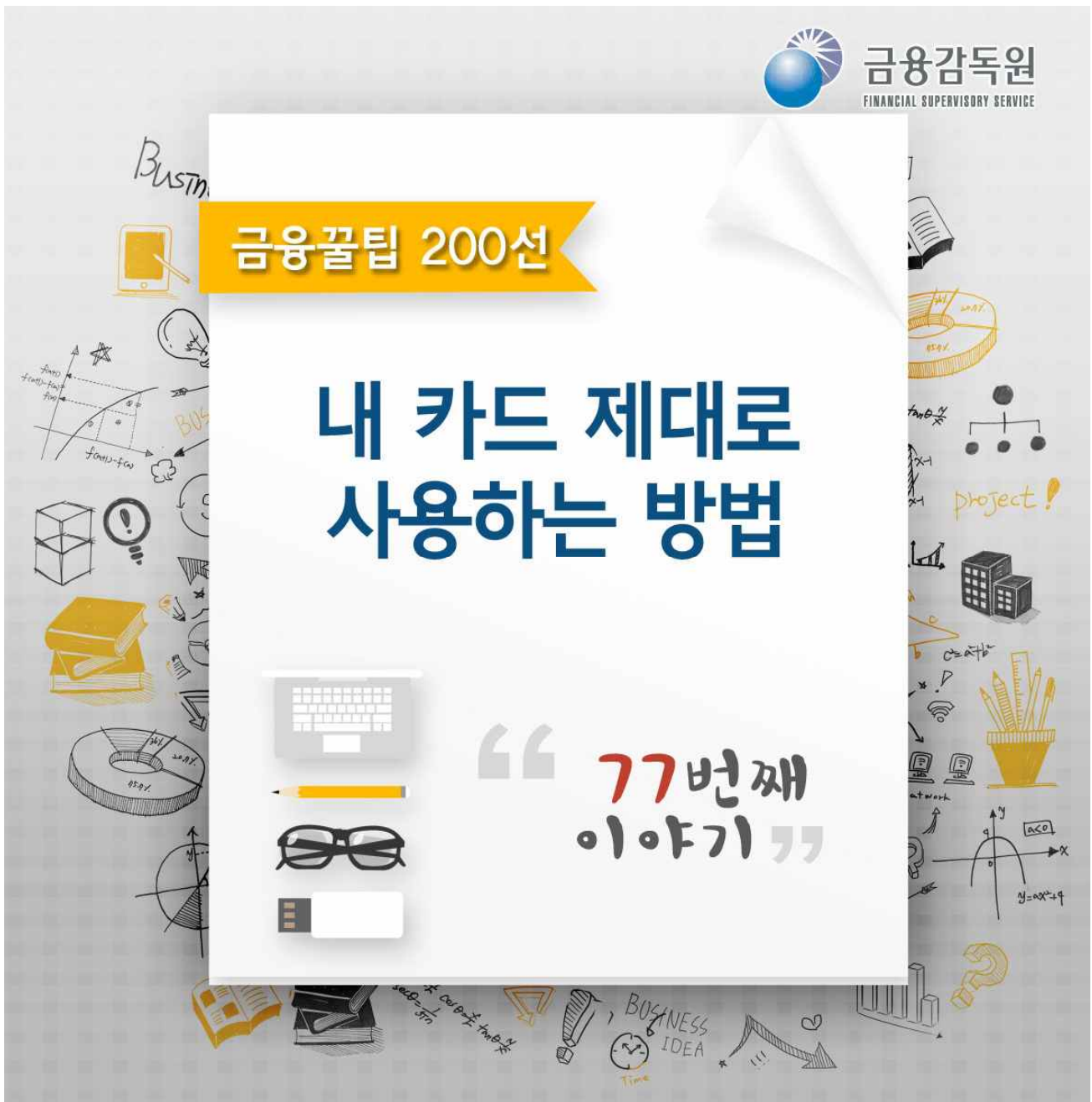
- 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http://fine.fss.or.kr> ⇒ ‘영상뉴스 파인톡톡’ 클릭
- ② 보험다모아 : <http://www.e-insmarket.or.kr> ⇒ 공지사항 ⇒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표준상품설명 동영상’ 게시물 클릭
- ③ 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 메인화면 하단 배너 클릭
- ④ 보험연수원 : <http://www.in.or.kr> ⇒ 메인화면 하단 배너 클릭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18.1.9.) 참고 (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 III 유용한 금융정보 - 금융꿀팁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중인 '금융꿀팁'에 대한 카드뉴스를 소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 [fine.fss.or.kr](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 카드 이용 전 상품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 ①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②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무이자할부 등)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③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1회 최소결제금액, 월간 할인제공 횟수 등)
- ④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 ⑤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⑥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⑦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를 꼭 확인하세요
- ⑧ 항공권,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연간 최소이용금액,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 이용 의무, 성수기 사용불가 등)
- ⑨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⑩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 [신용카드 주요 용어]

#### 전월 이용실적

#####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적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 (일부 항목 제외)  
- 매월 실제로 청구되는 카드 이용대금을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

#### 실적 제외

기 할인 받은 결제액, 국세, 공과금 등 (카드별로 상이)

#### 부가서비스

#####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

대표적으로는 금액 할인과 포인트 적립이 있음  
- 할인 : 현장할인, 청구할인 / 적립 :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등

#### 실적 제외

무이자할부, 선불카드 충전액 등 (카드별로 상이)

전월 실적 기준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카드와 함께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1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원)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지난달 할인 받은 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됨.

## 카드이용 포인트 적립 or 할인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혜택**과 **제공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통 할인 조건으로 전월 이용실적 필요**  
(30만원 이상 | 60만원 이상 | 90만원 이상 등 단계별)

특히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보유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이용내역 조회 화면) 별도 확인

## 2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무이자할부 등)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B씨는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생필품 구입에 이용해 왔더니 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없음을 알게 되어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무이자할부로 결제 시에는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전원 이용실적 조건 충족

할인·적립 대상은  
전원 이용실적 조건 제외



꼭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 3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C씨는 금다방 커피 20% 할인 제공 카드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으나, 얼마 뒤 1건도 할인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됨.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이라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하고 크게 실망함.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광고하는 할인율을 적용받기 힘든 경우 (예시)

### 금다방커피 10% 캐시백

일 1회, 월 4회 제공(건당 최대 2,000원 캐시백)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인 경우 캐시백 적용



출근길마다 아메리카노 한잔(4,100원)을 즐기는 김씨는  
최소이용조건(1만원이상)미충족으로 혜택 이용 불가

### 백화점 10% 결제일 할인

통합 일 1회, 월 3회, 할인 전 승인금액 1회 5만원까지 적용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원피스를 구매한 박씨는  
광고상 할인율 10%가 아닌 5%의 할인이 적용됨\*  
\* Min(구매금액(10만원), 최대할인한도(5만원)) 10%=5천원

## 4 월별 · 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D씨는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커피·마트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각각 2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았음.  
그러나 실제 할인금액이 20%가 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월 통합할인한도 10,000원' 조건이 있었음

할인혜택, 최대 얼마만큼까지 가능한가요?

다양한 할인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이 있지만,,  
할인안내 뿐만 아니라  
“통합 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 5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E씨는 온라인몰,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 다양한 할인혜택에 끌려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할인받는 금액도 크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곳이 할인되는지 잘 기억도 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됨.

복잡하고 다양한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  
(예: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또는 모든 가맹점 할인카드  
(예:국내외 가맹점 0.5~2.0%할인)를 이용해보세요



# 6

##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F씨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하여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4,300원만 할인받은 사실을 알게 됨.

주유할인 카드 할인액 = '리터당 × × 원 할인' ?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릅니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금액만을 알수있어  $\text{승인금액} \div \text{기준유가} = \text{가상의 주유량}$ 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등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7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

G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할부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아, 이 카드로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금에 대해 매월 12,000원의 할인을 받음.

6개월 후,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에 5.9%의 할부이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약금이 걱정되어 할부계약을 계속 유지함.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음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합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

## 8 항공권,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H씨는 '동반자 1인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이용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공권도 발권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보통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



##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바우처 이용조건을 받기 힘든 경우 (예시)

1. 항공바우처 사용 위해서는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를 이용, 유류할증료·발권수수료는 회원부담
2. 성수기, 연말 중 이용 불가
3. 바우처 이용 가능 지점이 제한될 수 있음(이용 지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 9

##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학생 J씨는 해외여행 중 거의 모든 경비를 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됨...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 시  
실제 이용금액 이외에 각종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

###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 청구금액

= 결제액+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

해외에선 현지통화로 결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10

##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직장인 K씨는 기존에 자기 카드로 주유요금 결제, 아내 카드는 생활비 용도로 이용해 둘 다 모두 이용실적 부족으로 할인을 못받음...

전월 이용실적이 합산되는 가족카드로 변경하여할인혜택 받으세요!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전월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 할인혜택 받기에 **유리**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여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일부 단점\*도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카드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음
2.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됨
3.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됨
4. 가족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품도 있음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금융꿀팁 2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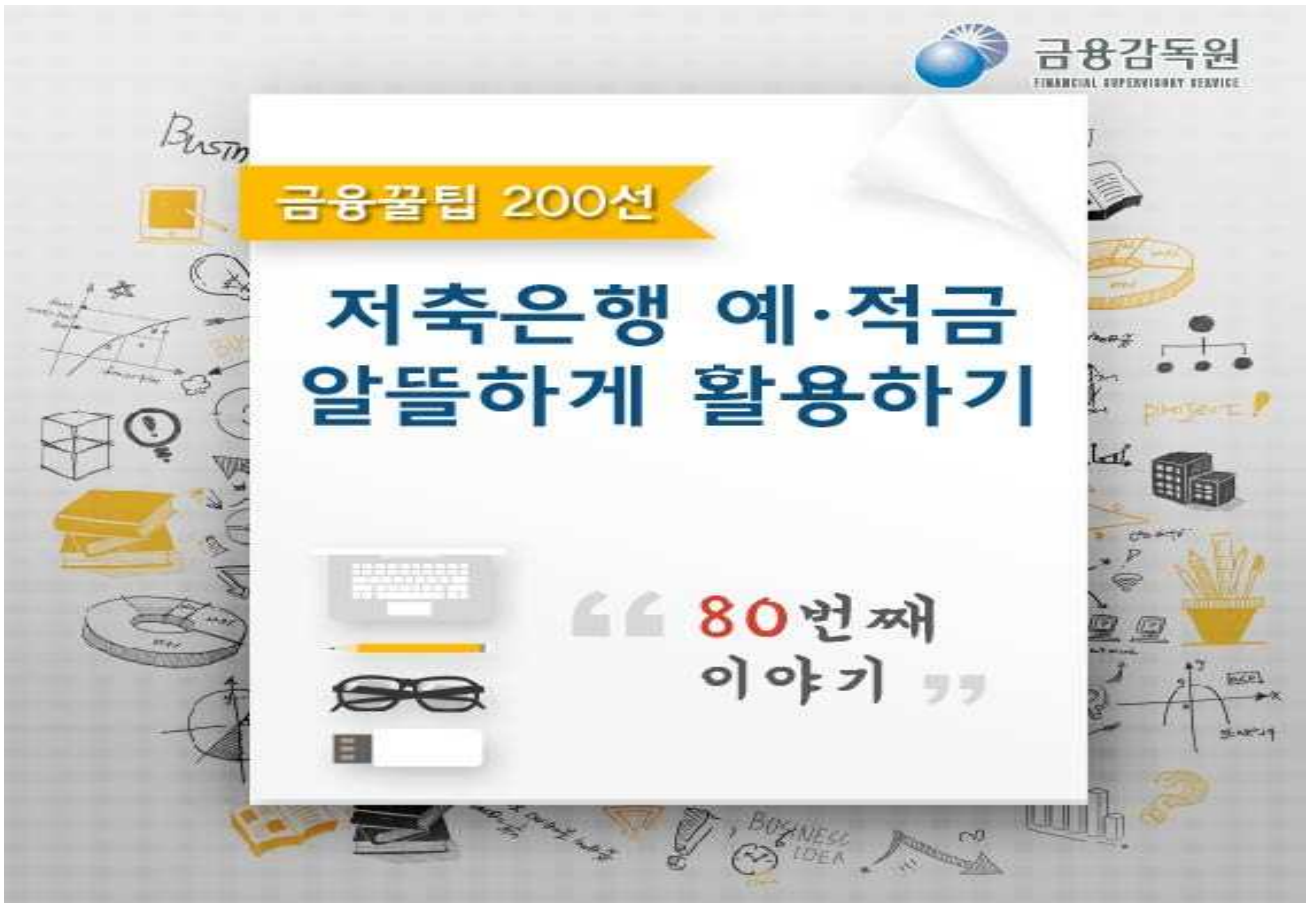
##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정보 ▶

“파인” [fine.fss.or.kr](http://fine.fss.or.kr) 에서 찾으세요!

## 2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나요?  
상품별 금리차이도 한눈에 확인 가능?

☞ 저축은행 예·적금,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 저축은행 예·적금 활용법

- ①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
- ② 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가입
- ③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 ④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직장인 A씨, 평소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이용하기에 아쉬움이 컸음

### ①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

## 저축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중

**'SB톡톡'**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다운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

영업점 방문없이 예·적금 통장을 개설

\* 예·적금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후 'SB톡톡'을 통해 조회·이체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2018. 1월 현재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에 가입 가능하며, 향후 가입가능한 상품 확대 예정.

사회초년생 B씨,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축은행이나 적금상품을 고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甲저축은행에 가서 바로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C씨의 적금금리가 0.2%p 더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음

### ② 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가입



현재 79개 저축은행 판매중인 수백여개의 예·적금 상품 각각 적용되는 금리도 다릅니다

### 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체크

[fine.fss.or.kr](http://fine.fss.or.kr)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2. 추가 우대금리 특별판매 예·적금 확인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추가 우대금리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 수시 판매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비대면 예·적금 적극 활용

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예·적금의 금리를 다소 높게 운영중!  
'SB톡톡' 앱을 통해 가입, 적극 활용해보세요!

甲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2.50%



SB톡톡을 통한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 2.66%

+0.16%p 높음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D씨, 은행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정기에금에 2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은행 정기에금만 이용

### ③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저축은행은 정기에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중

### 정기에금 가입시 서비스 신청하세요!

정기에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없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받아 생활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씨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년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면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이 내키지 않음

### ④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거래 하고 싶은 저축은행, 우량한지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fsb.or.kr> 에서 검색





※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

↑  
8%이상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체크해보세요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의미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예·적금 보호는?**

(예금자보호법상) 해당 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이자\*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가입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  
저축은행당 원금+이자합쳐 5천만원 이하로 분산 가입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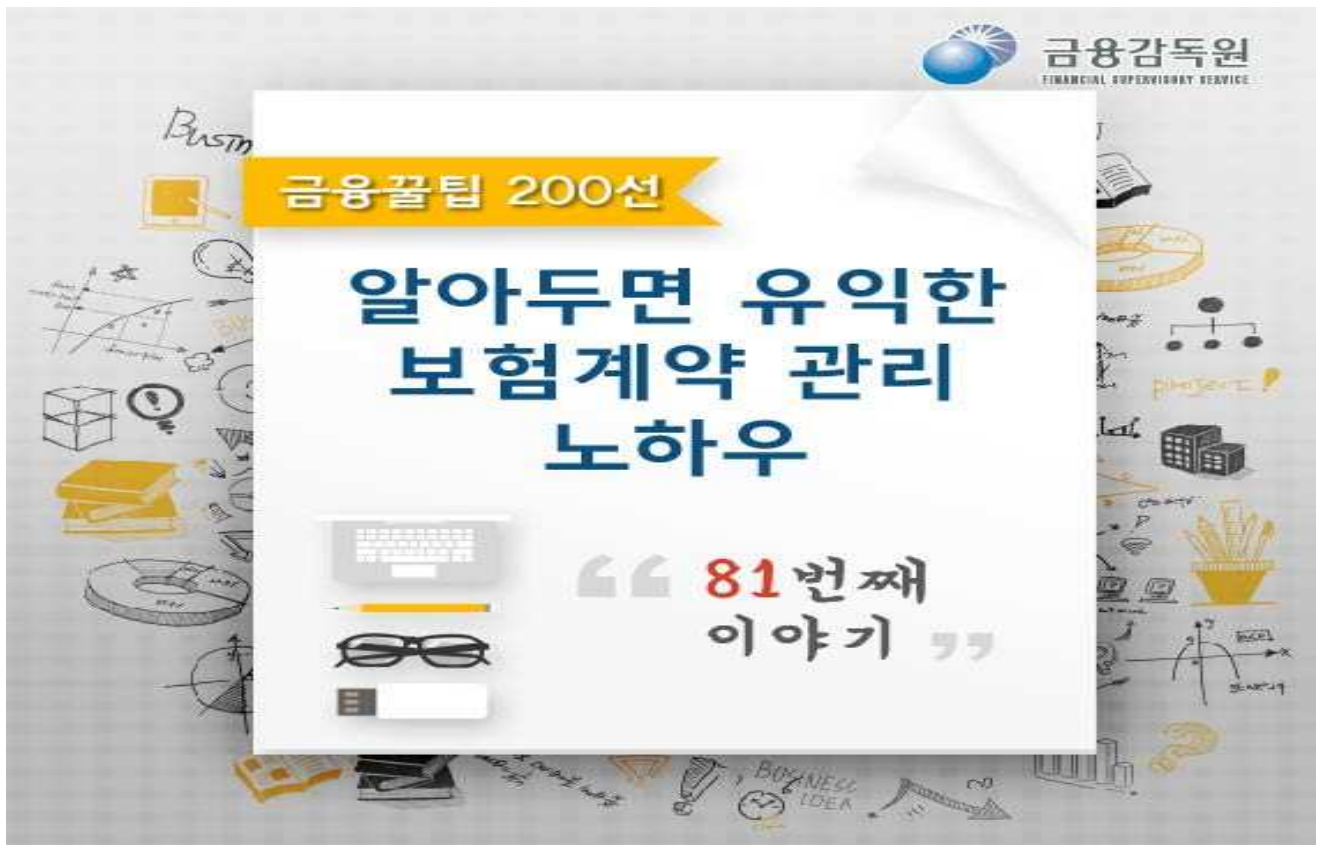
**< 이자까지 보장받는 팁 >**

◆ (예금자보호법상) 만기시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금리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리금(5,100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나,  
4,9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금(4,900만원)과 이자(약정이자 99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작은 금액)가 보장됩니다.



### 3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 ①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 ②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 ③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 ④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 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음

① 저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

보험료 줄이는  
**‘감액제도’**

(보험계약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함께 줄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 납입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보험료 내는 게 곤란? ▶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없는  
**‘감액완납제도’**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 납입)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다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 유의

**\*자동대출 납입제도란?**

◆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옴.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았음

## ②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  
보험가입때보다 건강?

# ▶ '건강체 할인특약'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

\*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남/녀,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을 상이

새로 보험 가입 + 이미 보험 가입자도 가입 가능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

\* 보험료 할인 · 환급,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전부 · 일부 지원 등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씨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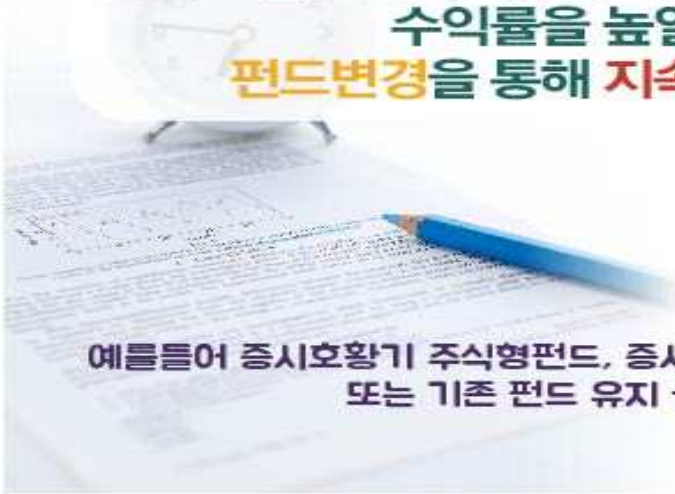
C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것 같아 고민중이었는데,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하였음

## ③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예를들어 증시호황기 주식형펀드, 증시침체기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거나  
또는 기존 펀드 유지 + 보험료 추가납입



(매분기) 변액보험 적립금,  
펀드현황 등 확인

### 보험계약관리내용

계약자현황, 계약사항, 보험료 납입사항,  
특별계정 펀드종류 · 수수료, 펀드변경 방법 · 절차 등

### 자산운용보고서

펀드별 기간수익률, 누적수익률, 펀드개요,  
자산현황, 비용현황, 투자자산 매매내역 등

펀드별 수익률, 투자관련

### 각 보험회사나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 변액보험 공시실 확인

※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회사별로 확인)

\*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예:주식:채권=4:6)을 정하고, 펀드수익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되면  
편입비율이 일정한 주기마다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됨

\*\*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자산 배분전략 등 펀드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가입자에게 상담 · 자문을 제공하는 전용콜센터

④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으로 예방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 변경 가능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 사망보험금 ▶ 민법상 법정상속인\*
- 장해보험금 등 ▶ 피보험자
- 만기 및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자 가 받게 됩니다

\* 민법상의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제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分)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동의 필요 없음)

다만, 보험사고 발생전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등기우편으로 통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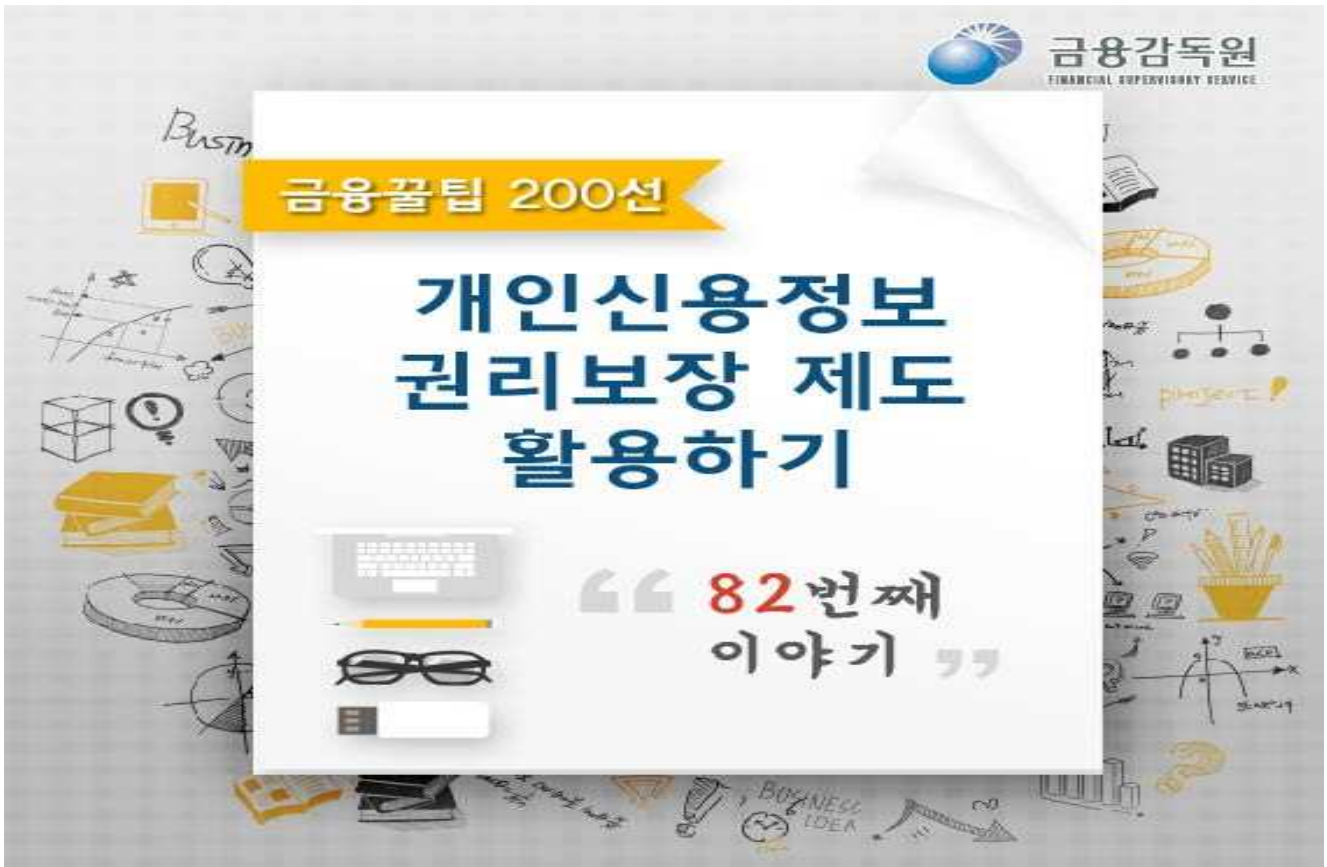
특히, 보험료 연체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http://fine.fss.or.kr) '금융주소 한번에'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 4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Hacking

내 신용정보,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에 찾아볼 수 있나요?  
지갑 잃어버려 불안한데...  
내 신용정보 조회되는 것을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

☞ 금융소비자의 권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 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 ③ 연락중지 청구
- ④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 ⑤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 ⑥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D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 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  
+  
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



※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

※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CANCELLED**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 ③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 연락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 등 신청 가능  
+

두낫콜(Do Not Call) 이용도 가능합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www.donotcall.or.kr](http://www.donotcall.or.kr)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 대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 후 2년간 유효  
(2년이 경과하거나, 휴대폰 번호 변경시에는 재등록)

#### 이용방법

- ◆ 두낫콜([www.donotcall.or.kr](http://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④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신청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회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 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해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 ⑥ 개인정보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할 경우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신청**

### 이용방법(예시)

- ◆ 「올크레딧」 (<http://www.olkredit.co.kr>) 접속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



## IV 소비자 경보! 주의하세요.

• 금융소비자 뉴스 •

### 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 투자 주의하세요



#### 핵심내용

◇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경보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12.6~)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배경

- ✓ '17년중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1조원**으로 '15년(0.3조원) 대비 **15.4배 급증**하였습니다
  - \* Exchange Traded Fund,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상장 등으로 인하여 환금성이 우수. 고위험등급 ETF로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이 있음
- ✓ 특히 '18.1~2월중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17년(월평균 3,449억원)을 **2배정도 상회**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 ※ '17년 중 은행 전체 ETF 가입규모는 8.0조원으로 '15년 대비 5.2배(6.5조원↑) 증가
- ✓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15년 이후 금융감독원 민원은 19건 수준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민원 급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1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 유의**  
고위험 ETF 신탁상품은 **자동해지특약\***을 한 경우 수익은 일정 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합니다**
  - \* 특정 수익(예) 2~3% 발생시 신탁상품을 자동 해지하는 특약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임을 유의**하세요
- 2 레버리지 ETF 신탁상품의 경우 손실범위 더욱 주의**  
**레버리지 ETF 신탁**의 경우 주가지수 등이 하락할 경우 기준지수 하락 대비 **손실 범위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 등 기초지수 등락폭 보다 상품 손익의 변동폭이 더 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본인의 투자등급에 맞는 금융 상품에 투자**  
상품 선택시 **투자정보분석표** 등을 참고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정한 리스크**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자금, 필수 결제자금 등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 **투자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콜센터 1332

금감원콜센터(국번없이 1332)는 전화 한통화로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상담,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자문서비스 등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관련 질의사항, 무엇이든 1332로 물어보세요”**

- 상담시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7:00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00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및 화상(수화) 상담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금융정보·교육 서비스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 | <http://fine.fss.or.kr>  
\*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 <http://consumer.fss.or.kr>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 등
- 금융교육센터 | <http://edu.fss.or.kr>  
\* 금융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금융교육·교재 신청 가능